





배치도

한편의 프로젝트를 건축적 해법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 해결의 접근방법을 스스로 체득한 나 나름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것은 얼핏보면 온통 황철을 한 어지러운 낙서와도 같으며 원초적 형태의 단순 도형을 반복하여 그리며 너무 엉키고 뭉쳐지는 무수한 선으로부터 시작한다.

주어진 부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수렴해야 할 크라이언트의 요구사항, 건축적 개념분석과 열리고 닫히는 공간구성, 각 기능별 연결과 단절의 동선체계, 배치에 바탕한 지반층과 그위에 Over Lap되는 각층 평면, 그 평면의 내적 공간과 외적 파사드, 입면과 연관된 단면계획, 구조와 설비의 진단, 간과해선 안될 법규검토, 사용재료의 선택과 시공성, 경제성, 여기서 다시 환원하여 원점으로 난마처럼 열크리진 복합적인 것들에서 찾아야될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또 그리며 그러하기를 수십번, 그 누군가 건축을 빚어 낸다고 했던가. 눈에 드는 단한개를 얻기 위해 만들고 부수기를 수도 없이 거듭하는 도공의 속마음은 알량한 작가적 자존심 때문인가, 아니면 자이를 초월한 숭고한 예술적 구현을 위함인가, 자신에게 묻고 싶다.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소임을 충실히 하였는가?

적당히 타협하고 손쉽게 처리하며 궤변적 논리로 정당화한 것은 없었는가?

만들고 부수는 도공의 정신은 이 시대의 건축인에겐 그 어떤 작가적 표현으로 나타나다 할 것인가.